2015년10월13일년 수능(윤리와사상) 필기시험 기출문제 답안

【1과목 : 19문제】 과목구분없음	1	2	3	4	5	6	7	8	9	10
	⑤	④	⑤	④	③	②	①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⑤	①	③	③	⑤	③	②	①	④	

전자문제집 CBT 홈페이지 : https://www.cbtestpro.kr

최신 수정 자료와 해설(오타・오답・규정변경)은 cbtestpro.kr 웹 및 앱에서 확인하세요.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출제기관에 있습니다. cbtestpro.kr 및 관련 앱에서는 편집 및 재구성 작업만 하였음을 밝힙니다.

CBT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워 시험 합격을 노려라!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1과목】 과목구분없음 (19문제)

1.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정념을 극복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

② 속세에서 벗어나 신에게 귀의하여 영생을 도모한다.

③ 정당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의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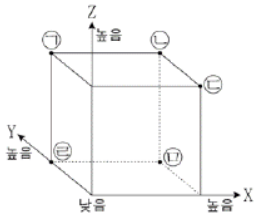
④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검소하고 사려 깊게 생활한다.

2.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ㄱ)~(ㅁ)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사회로부터 삶의 목적과 역할을 부여받는다. 개인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나) 개인은 사회로부터 특정한 목적이나 가치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각자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 X: 개인들 간의 유대 의식을 중시하는 정도
- Y: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 Z: 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효의 이치[理]는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식(儀式)과 절차에 맞는 것을 지극한 선[至善]이라고 한다면, 연극배우가 의식과 절차에 맞게 효를 연기한 것도 지극한 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 보 기 >

ㄱ. 부모가 돌아가셔도 효의 이치는 있는가?
ㄴ. 효행의 의식과 절차에 맞는다면 모두 효인가?
ㄷ. 효행을 하려면 효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하는가?
ㄹ. 효행을 할 때 부모에게서 효의 이치를 구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국가는 개개인이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지녔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 시민 사회이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 을 : 국가는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목적이 되는 시민 사회와는 다르다. 국가는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조화와 통일을 이룬 절대정신의 구현이다.

① 갑은 국가의 통치자는 절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국가를 인간의 사회성으로 인해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구성원의 동의와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된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국가의 일원일 때만 참된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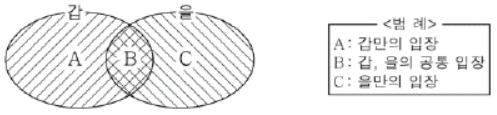
⑤ 갑, 을은 모두 국가를 개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 나라의 세 계급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할 때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개인도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 ○ 철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철학을 하며 보내다가 차례가 오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들은 좋음 자체를 본으로 삼고 번갈아 가며 나라를 다스린다.

① 통치자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은 정책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올바른 국가 실현을 위해 정치권력과 철학이 결합되어야 한다.
④ 계급들의 협력을 위해 계급 간 역할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도덕 공동체 실현을 위해 모든 계급의 재산이 공유되어야 한다.

6.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갑 : 도지개나 먹줄은 굽은 것을 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임금을 세우고 예(禮)를 밝히는 것은 악한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을 : 도지개나 먹줄로 굽은 것을 펴는 것은 본성을 깎아 내는 것이고, 사람을 예악(禮樂)에 따르게 하는 것은 본모습을 잃게 하는 것이다.
(나)	

① A : 예는 타고난 덕성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② A : 예를 통해 욕망을 다스려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③ B :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에 따라 살아야 한다.
④ C : 예악으로 욕구를 극복할 때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⑤ C : 예악은 좋은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7. 사회사상가 갑, 을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 갑 :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모두 증진될 것이다.
> 을 :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업, 불황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질문	갑	을
①	사적 소유권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하는가?	예	예
②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혼합된 경제 체제를 지향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③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 시행이 국가의 주된 역할인가?	예	아니요
④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과적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요	예
⑤	정부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8.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행위는 의무에서 한 것이든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든 도덕적이다. 행복이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므로 행복을 증진시킨 행위는 도덕적이다.
> 을 : 상인이 정직하게 판매했더라도 그것이 단골을 만들려는 동기에서 나왔다면 도덕적이지 않다. 행복을 증진시킨 행위일지라도 의무에서 나온 경우에만 도덕적이다.

① 행복은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행복의 추구와 도덕적 의무 수행은 별개의 것이다.
③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유용성이다.
④ 행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도덕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⑤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도덕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전자문제집 CBT(App Store)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전자문제집 CBT(Google Play) :[다운로드]

9.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사단(四端)을 확충하는 것은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始然(시연)] 샘물이 처음 솟는[始達(시달)] 것과 같다. 사단을 확충해 나간다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지만, 확충하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길 수 없다.
> 을 : 사단이 선한 것을 보면 본성[性]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물이 맑게 흐르는 것을 보고 물의 근원이 맑은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사단은 정(情)이고 성은 이(理)이다.
> 병 : 시연은 불의 시작이고 시달은 물의 시작이며 측은(惻隱)은 인(仁)의 시작이다. 시연이 확충되어 들불이나 화롯불이 되고 시달이 확충되어 강이나 하천이 되며, 측은이 확충되어 인이 천하를 덮게 된다.

① 갑: 본성을 변화시켜야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② 을: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다.

③ 병: 본성의 보존을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④ 갑, 을 : 본성이 선하므로 모든 마음이 선한 것이다.

⑤ 을, 병 : 본성을 선하게 만들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10. 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 사단(四端)을 확충하는 것은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始然(시연)] 샘물이 처음 솟는[始達(시달)] 것과 같다. 사단을 확충해 나간다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지만, 확충하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길 수 없다.
> 을 : 사단이 선한 것을 보면 본성[性]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물이 맑게 흐르는 것을 보고 물의 근원이 맑은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사단은 정(情)이고 성은 이(理)이다.
> 병 : 시연은 불의 시작이고 시달은 물의 시작이며 측은(惻隱)은 인(仁)의 시작이다. 시연이 확충되어 들불이나 화롯불이 되고 시달이 확충되어 강이나 하천이 되며, 측은이 확충되어 인이 천하를 덮게 된다.

< 보 기 >

ㄱ. 사덕은 사단의 실천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ㄴ.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緖]라고 보아야 한다.
ㄷ. 사단은 선천적인 것, 사덕은 후천적인 것이다.
ㄹ. 사덕은 성이고 사단은 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의 입장에서는 긍정의 대답을, (나)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가) 사회주의의 실현은 필연적이지 않다. 사회주의는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나) 공산 사회의 실현은 필연적이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항하는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① 국가와 계급이 소멸된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② 평등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정치권력을 철폐해야 하는가?

③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④ 자유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가?

⑤ 폭력 혁명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12.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참된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참된 자기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주체적 진리이다.
> 을 : 유일한 실체인 신 또는 자연은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세상 만물은 실체의 양태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온전히 인식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보 기 >

ㄱ. 갑은 주체적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ㄴ. 을은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할 것을 강조한다.
ㄷ. 갑, 을은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신의 명령보다 자신의 의지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가상 대담을 하는 사상가는 조선 시대의 유학자이다. (ㄱ)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사회자: 네 가지 도덕적 감정[四端]과 일곱 가지 일반적 감정[七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사상가: 도덕적 감정은 이(理)가 발현한 것으로 순선(純善)하지만, 일반적 감정은 기(氣)가 발현한 것으로 악(惡)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의 연원 및 특성은 명백히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사상가: _____ ㉠

① 도덕적 감정이 일반적 감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② 도덕적 감정만이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도덕적 감정의 순수성이 훼손될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을 분리시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⑤ 도덕적 감정과 일반적 감정이 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ㄱ), (ㄴ)에 대한 이 사상가의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남성적 도덕성을 중시하는 윤리는 도덕적 문제를 자율적 개인들 간의 권리 상충의 문제로 보고, 추상적인 도덕 원리의 적용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 여성적 도덕성을 중시하는 윤리는 도덕적 문제를 타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책임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도덕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맥락을 중시한다.

< 보 기 >

ㄱ. ㉠은 사람들의 개별성보다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ㄴ. ㉡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도덕성으로 여긴다.
ㄷ. ㉠은 정의와 공정성을, ㉡은 공감과 동정심을 중시한다.
ㄹ. ㉠, ㉡은 도덕성과 도덕적 추론 능력이 무관하다고 여긴다.

① ㄱ,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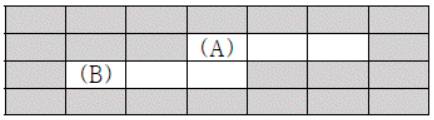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일체는 영원불변하지 않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흘러갈 뿐이니 실체가 없는 공(空)이다. 삼라만상이 색(色)인 것 같지만 그것은 공이다. 그러나 공이 색을 떠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나)	 [가로 열쇠] (A): 도가 철학의 시조인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노자"라고도 함 (B): 석가모니가 깨달은 후 처음 설법한 것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르는 말 [세로 열쇠] (A): …… 개념

① 인간의 현상적 삶의 핵심적 특징은 고통이라는 진리이다.

②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 구제에 힘쓰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③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최고의 경지이다.

④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번뇌는 탐진치(貪瞋癡)라는 진리이다.

⑤ 유(有)와 무(無)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법이라는 진리이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우리는 본래부터 감정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품성에 달려 있다. 품성의 덕은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품성의 덕을 완성할 수 있다.

① 모든 감정을 배제해야 덕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품성의 덕을 갖출 수 있다.

③ 좋은 행위를 꾸준히 반복해야만 품성의 덕을 갖출 수 있다.

④ 타고난 덕을 충분히 발휘할 때 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⑤ 품성의 덕은 모든 행위를 할 때 중간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1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계시된 진리와 철학의 진리는 모순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한다는 진리는 이성적 논증을 통해 보다 뚜렷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의 진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체적이고 완전한 계시된 진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 보 기 >

ㄱ. 신학과 철학은 구분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ㄴ. 계시된 진리는 모두 철학의 진리로부터 파생된다.
ㄷ. 계시된 진리는 철학의 진리보다 우월한 진리이다.
ㄹ. 철학적으로 증명된 진리만이 계시된 진리로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사례>의 학생 H의 행위에 대해 내릴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유덕함과 부덕함의 구분은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우리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덕하고 부인(否認)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부덕하다.
>
> <사례>
>
> 학생 H는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게 된 친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아침마다 그의 집으로 가서 가방을 들어 주며 함께 등교하였다. 이를 본 학교 친구들이 매우 흐뭇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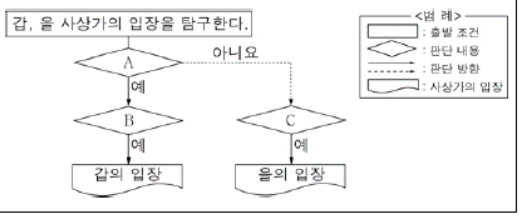
① 친구들이 공감하며 쾌감을 느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② 자신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③ 감정이 배제된 합리적 판단에 따랐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④ 친구의 편리만을 추구한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⑤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 의식을 따랐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19.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 덕(德)으로 다스리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뭇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 을 : 통치자가 함이 없으니[無爲]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저절로 바르게 되며, 욕심을 내지 않으니 저절로 순박해진다.

(나)



① A : 통치자의 덕은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가?
② B : 덕을 버려야 최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③ B : 덕으로 백성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④ C : 좋은 통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리는 것인가?
⑤ C :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덕보다 법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ㄱ)~(ㅁ)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가), (나) 사상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가) 세계의 본질은 이성이다. 이성에 의해 자연과 신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도 수용해야 한다.
> (나) 세계의 본질은 의지이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욕망 그 자체이다. 이러한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은 고통과 권태를 느낀다.

◎ 학생 답안

(가)는 ㉠ 세상의 모든 일이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았고, ㉣ 의지를 긍정하고 그것에 충실히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금욕적인 삶의 자세를 중시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